

트럼프 “김정은, 약속 지키겠지만 어길 수도”

北 ICBM 도발 가능성 시사

레드라인 넘지 말라 경고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그럴 수도(약속을 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공언한 '새 전략무기 공개'와 '충격적 실제 행동'과 관련,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의 경고메시지로 해석되는데, 김 위원장이 약속을 깰 수도 있

다는 언급이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한 당국의 첩보를 반영한 것인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 “그(김 위원장)가 내게 한 약속을 깰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 공동 취재진이 전했다. 문답은 30분 정도 진행됐으며 일부는 비보도하기로 했는데 북한 관련 발언은 이와 같았다고 공동 취재진은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새 전략무기 공개와 충격적 실제 행동을 언급한 후에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부각하면서 “나는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약속을 깰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어느 대통령에 비해 표현을 정제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의

도 없이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미 정보당국을 통해 수집된 북한의 동향을 근거로 언급한 것일 수도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ICBM 카드에 손을 댈 가능성을 미 당국이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약속했으며 미국은 이를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여겨왔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14〉 왕소

왕소(王素, 1071-1073)의 자는 중의(仲義)이며 현 산동성 요성시에 해당하는 신현 출신이다. 북송초 재상을 지낸 왕단의 아들로 인종 때 주로 활약했다.

천성 5년(1027) 관직에 나아가 안휘성 영주, 하남성 회주의 통판을 지냈다. 이후 상서문전중외랑으로 산동성 북주의 지주가 되었다. 어사중승 공도보 추천으로 시어사가 되었으나 공도보가 좌천되자 호북성 약주 지주로 좌천되었다. 약주에서 인정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경력 2년(1042) 개경부원외랑, 지간원, 동판국 자감에 제수되었다. 인종이 대신들에게 정치개혁에 관해 하문하자 10 여가지를 상소하니 황제가 크게 기뻐하였

위를 풀고 희군하였다. 군대를 잘 통솔해 서하인들이 두려워하였다. 강족(羌族) 사람들이 땅을 바치고 복속을 요청했다. 하루는 장수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와 반방의 백성들이 놀라 성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긴급무기가 들어왔다. 장수들이 간사한 무리들을 입성시키면 반드시 내용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기를 “그들의 입성을 막으면 동쪽으로 가 관중이 반드시 소란스러워 질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있어 감히 나를 침범치 못할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잠시 후 척후병이 잘못된 정보라고 보고했다. 장수들이 모두 그의 선견지명에 감탄했다.

신종 희녕초 단명전학사로 태원부 지주가 되었다. 산서성은 매년 흉년이 들어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다. 부자들

재상 부친 대이은 북송 인종 때 명신

다. 3품의 관직을 내리고 천장각대제, 회남전운안찰사로 승진시켰다. 종전의 안찰사들은 가혹했지만 그는 정도를 지켰다. 탐관오리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추궁해 부하들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였다. 감숙성 위주, 섬서성 화주의 지주를 역임했고 중앙에 복귀해 병부랑중이 되었다. 이어 인사를 담당하는 기구인 삼배원의 업무를 담당했다. 사천성 성도부의 지주를 역임했는데 화폐인 철전(鐵錢)이 대량 주조되어,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향후 10년간 철전을 주조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려 위기에 대처했다. 사천성 광원에 기근이 들자 관부의 창고를 열어 이재민을 구휼하였다. 인종이 구휼에 관한 조서를 내리기 전에 왕소의 상소가 조정에 도착하자 크게 칭찬하였다. 왕소가 벼풀은 선정으로 축 사람들은 그는 왕공이단(王公異斷)이라고 일컬었다. 이후 지개봉부로 복직되었다.

삼공(三公)의 자제들이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거들먹거리는 것을 혐오해서 변잡한 공무를 점차 멀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독이 늘어나자 어사의 탄핵을 받아 허주의 지주로 좌천되었다. 치평 원년(1064) 서하(西夏)가 서쪽 변경을 침입했다. 그는 단명전학사로 제수되어 재차 위주 지주로 부임하였다. 서하 군대가 부임 소식을 듣자 포

에게 식량을 기부토록 해 10만여 명의 이재민을 구제하였다. 백성들이 은혜에 감복해 그가 이직하자 말을 가로막아 종일토록 나갈 수가 없었다. 경사로 들어가 지동진, 은대사를 거쳐 공부상서로 재직 중 1073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신종은 하루동안 조화를 파하고 의민(懿民)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경력신정이 실패해 범종엄, 부필, 한기 등이 관직에서 쫓겨나자 대신들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했다. 오직 그만인 홀로 “부필, 한기, 범종엄이 모두 신망이 두터우니 당연히 다시 불러 기용해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종 앞에 서 부필을 칭찬하였다. 부필이 재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소가 상당한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부필이 재상이 되자 지개봉부에 있던 자신을 요직에 기용해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뜻이 관철되지 못하자 부필을 힐책하였다.

왕덕옹이 후궁 두 명을 인종에게 올리자 그가 간언했다. 인종이 말하기를 “짐은 진종의 아들이고 경은 왕단의 아들이니 우의로 따지자면 다른 사람에게 비할 바가 아니다. 왕덕옹이 두 여자를 올려 이미 짐을 좌우에서 섬기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왕소가 말하기를 “나의 근심은 좌우에서 모시는 데 있습니다.” 인종이 얼골빛을 고쳐 3백관씩 주고 두 여자를 내렸다.



파병을 앞둔 미군 제82공수사단 소속 장병들이 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기지에서 장비를 챙기고 있다./연합뉴스

사스 아니라지만...

중국 우한 다녀온

홍콩인 발병 17명으로 늘어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하는 가운데 우한을 다녀왔다가 발열,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홍콩인들의 수도 또한 계속 늘고 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14일 이내 우한을 다녀왔다가 발열, 호흡기 감염, 폐렴 등의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전날 추가로 8명 확인됐다고 홍콩 보건 당국은 밝혔다. 이 가운데는 9살 남자 어린이, 2살 여자, 22~55세 사이의 남성 4명과 여성 2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한을 다녀온 홍콩 여성이 지난 2일 상기도감염(上氣道感染) 증상을 보여 처음으로 격리 조치된 후 우한을 다녀왔다가 병세를 보여 격리 조치된 홍콩인의 수는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최근 우한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온 홍콩중문대 재학생도 포함됐다. 20세인 이 여학생은 폐렴 증세를 보여 롬메이트와 함께 격리 조치됐다. 격리 조치된 17명 중 5명은 병세가 호전돼 퇴원했다.

사태 확산에 따라 홍콩 보건 당국은 지난 4일부터 '심각' 단계로 대응 태세를 격상하고, 공항에 고열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 배치하는 등 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홍콩 보건 당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인 불명의 폐렴이 수산시장 및 야생동물 시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미뤄 동물과의 접촉에서 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한편 마카오 당국도 최근 우한을 방문했다가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인 환자가 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독감 등 평범한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까지 원인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5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7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동 전운 고조...美 추가파병, 이란 미사일부대 비상대기

美 이란 군부 실세 제거에

양국 무력 충돌 일촉즉발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와 이란의 보복 예고로 중동 상황이 일촉즉발로 치닫하는 가운데 양국 군이 무력 충돌 가능성 대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중동 지역에 특수전 부대 병력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익명의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병된 특수전 병력 중에는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ASOC) 산하 지상 전투 병력의 핵심인 제 75 레인저연대의 1개 중대가 포함된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레인저 중대는 보통 150~200명으로 구성된다. 미국은 중동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3500명의 추가 배치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파견된 특수전 부대 병력은 이보다 적은 적지만 중동 내 미군의 공격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경(輕)보병 부대인 레인저는 적의 수장을 사살하거나 생포하기 위한 습격 작전에 특화된 병력이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06년에도 이란 내 첩보원과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 수장들을 찾아내는 작업에 투입됐다.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결성된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 역시 이란 측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어 태세로 전환했다. 국제동맹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IS 잔당 소탕을 위한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3일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

군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폭사한 이후 이란이 '가혹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호세인 데흐간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 수석보좌관은 이날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대응은 틀림없이 군사적일 것이며, (미국의)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미군 시설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란군 역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의 미사일 부대가 강화된 비상대기상태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이란 미사일부대가 특정 공격 대상에 염두에 두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란군의 태세가 방어를 위한 것인지 공격을 위한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통신에 전했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